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6월 18일

제07-28호

[상세 내용]

통상환경 전망(2007년 1분기)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연구위원 (jksuh@kiep.go.kr, Tel: 3460-1156)

이홍식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hslee@kiep.go.kr, Tel: 3460-1200)

이경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khyi@kiep.go.kr, Tel: 3460-1083)

주요 내용

▣ DDA 동향 및 전망

- 2007년 말 DDA 종결을 목표로 주요 4개국(G4) 간 핵심쟁점에 대한 치열한 이해 절충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만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G4 간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으며, 6월 중 G8 정상회담과 G4 통상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6월 중 DDA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함.
- 6월 말까지 농업분야와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의 세부원칙 초안이 제시될 예정임.
- 이를 기초로 7월 초 각료회의를 통해 DDA 세부원칙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DDA의 연내 또는 2008년 초 종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DDA 협상은 6월 중순부터 한 달 간이 DDA 연내 종결을 가늠할 수 있는 최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3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194건으로 특히 2000년 이후 싱가포르, 중국, 인도, 태국, 일본 및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RTA 추진이 현저함.

- 현재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7년 남은 기간 중에도 추가적으로 FTA가 타결되거나 새로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각국의 FTA 추진 현상은 활발히 지속될 것이며, FTA 체결국간의 교역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 DDA 전망

가. 최근 동향

- 2007년 1월 다보스 소규모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된 DDA 협상은 삼각쟁점을 중심으로 주요 4개국(G4: 미국, EU, 브라질, 인도) 간 협상이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2007년 2월부터 DDA 협상이 사실상 재개되어 5월까지 농업, NAMA, 서비스, 무역원활화 등 전체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협상이 전개되었음.
- 그러나 DDA 전체 흐름을 결정할 삼각쟁점인 농업부문에서의 관세감축과 민감품목의 처리 문제, 무역을 왜곡시키는 농업보조금의 감축 수준, 그리고 비농산물의 관세감축폭 등에 대해서는 G4 국가간에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DDA 협상은 일부 기술적 쟁점에 대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난 2006년 7월 DDA 중단 당시의 협상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회의(5월 15~16일)를 계기로 G4 통상장관들이 삼각쟁점에 대한 기존의 입장 차이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농업분야의 핵심쟁점과 타협방향을 정리한 의장초안이 두 차례 배포되는 등 G4 간 입장 절충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DDA 급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특히 미국과 EU 간에는 삼각쟁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절충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음.
- 결국 DDA 협상의 최근 동향은 핵심쟁점인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분야에서 G4 간 이해를 조정해가고 있는 한편 이를 다자화하는 과정에서 제네바 중심의 공식협상이 동시 추진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음.

나. 협상 전망

- DDA 협상은 향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의 한 달 간이 사실상 DDA 연내 타결을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오는 7월 중순까지 농업과 NAMA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요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DDA 협상은 사실상 2~3년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임.
 - 미국은 2008년 3월 이후부터 대선 경쟁에 들어가 사실상 DDA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EU 집행위원장인 만델스의 임기도 2009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음.
 - 따라서 금년 7월 말까지 농업과 NAMA 분야의 세부원칙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EU의 새 행정부와 집행부가 들어서는 2009년 3월 이후에야 DDA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G4 국가들은 실무고위급 또는 장관급 차원에서 계속된 양자 또는 복수국 간 협상을 계속해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6월에도 계속될 예정임. 특히 G4는 6월 23일까지 핵심쟁점에 대해 접점을 찾기로 약속한 바 있음.
 - 5월 29일에는 G4 실무고위급회담(SOM)이 파리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6월 6~8일에는 독일에서 G8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6월 19일에는 G4 통상장관회담이 런던에서 열릴 예정임.
- 특히 6월 중순에는 팔코너 의장이 농업분야 세부원칙을, 6월 말에는 스테파노 의장이 NAMA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이와 함께 라미 WTO 사무총장도 G4 국가간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절충을 강력히 중용하고 있으며, 7월 초부터는 제시된 세부원칙 초안에 기초하여 각료회의를 소집, DDA의 세부원칙 합의 도출을 위해 회원국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만일 G4 국가간 핵심쟁점에 대한 이해 절충이 이루어진다면 7월말 DDA 세부원칙 합의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의 TPA도 DDA에 한해 부분 갱신 가능성이 높아 DDA 연내 타결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음.
 - 그러나 7월 말 DDA 세부원칙 합의도출이 무산된다면 DDA의 2~3년 지연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WTO 자체의 위상도 크게 손상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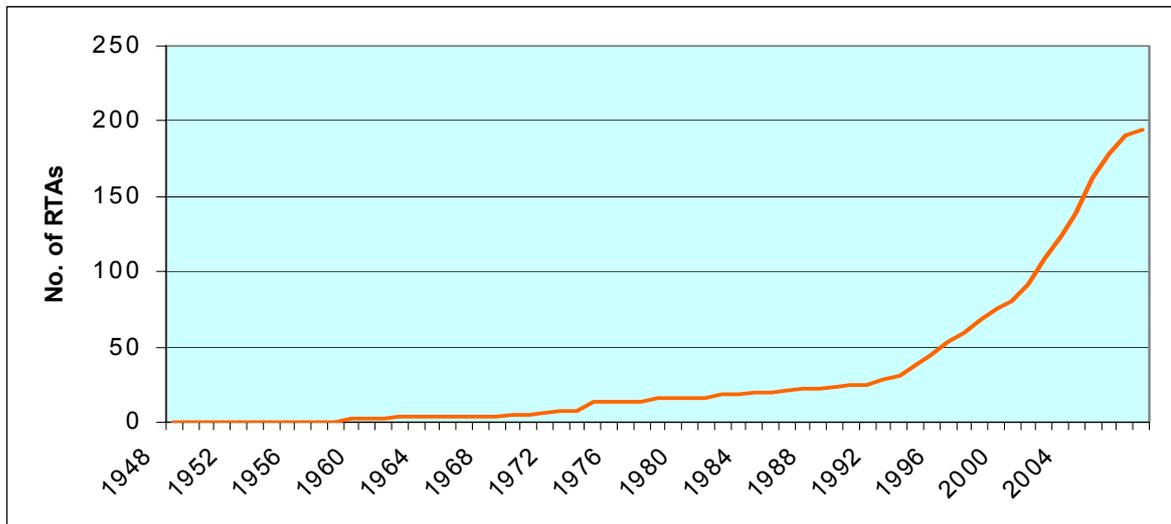
2. 세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동향 및 2007년 전망

가. 세계 FTA 추진 동향

- 2007년 3월 현재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은 총 194건이며 이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협정이 44건, 개도국간 특혜협정(Preferential Arrangement)이 19건,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14건으로 나타남.
- 특히 200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 움직임이 매우 활발한 가운데, 특히 싱가포르, 중국, 인도, 태국, 일본 및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RTA 추진이 눈에 띄게 나타남.

그림 1. 발효 중인 RTA 건수(2007. 3 현재 WTO에 통보된 RTA의 누적건수 기준)

(단위: 건수)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표 1. 발효 중인 RTA 건수 (2007년 3월 현재 WTO에 통보된 RTA 기준)

	2000년 이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3월
신규	-	10	18	15	15	23	16	13	3
누계	81	91	109	124	139	162	178	191	194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나. 2007년 RTA 전망

- 현재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7년 남은 기간 중에도 추가적으로 FTA가 타결되거나 새로운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많은바, 앞으로도 각국의 활발한 FTA 추진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FTA가 21건 이상에 달하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FTA 협상이 26건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2007년 현재 16건 이상의 FTA 협상이 이미 개시되었거나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 o 2007년 중 발효 예정인 FTA로는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일본·필리핀 FTA, 중국·파키스탄 FTA 등이 있으며, 한·미 FTA 협상이 지난 4월 타결된데 이어 일본·ASEAN FTA 및 인도·GCC FTA 상품무역협정 등이 상반기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난 5월 한·EU FTA 협상이 개시된 데 이어 중국·페루 FTA, EU·ASEAN FTA 협상 등이 연내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2007년 전세계 FTA 추진 전망(2007. 5 현재)

2007년 중 발효 예상 (21건 이상)	2007년내 협상 타결 목표 (26건 이상)	2007년 협상 개시 예상 (16건 이상)
o 한국·ASEAN FTA 상품협정	o 한국·미국 FTA(2007.4 타결)	o 중국·칠레 FTA 서비스협정
o 일본·칠레 FTA	o 한국·인도 CEPA	o 중국·아이슬란드 FTA(07.4개시)
o 일본·인도네시아 FTA	o 한국·캐나다 FTA	o 중국·페루 FTA
o 일본·필리핀 FTA	o 한국·멕시코 SECA	o 한국·EU FTA(07.5 개시)
o 일본·브루나이 FTA	o 호주·뉴질랜드·ASEAN FTA	o 한국·MERCOSUR FTA
o 일본·태국 FTA	o 한국·ASEAN FTA 서비스협정	o 일본·호주 FTA(07.4 개시)
o 중국·파키스탄 FTA	o 중국·호주 FTA	o 일본·인도 FTA(07.4 개시)
o 중국·ASEAN FTA 서비스협정	o 중국·GCC FTA	o 일본·스위스 FTA(07.5 개시)
o 대만·엘살바도르·온두라스 FTA (2008.1 발효예정)	o 중국·ASEAN 서비스 협정	o 싱가포르·GCC FTA
o 미국·콜롬비아 FTA	o 미국·말레이시아 FTA	o 싱가포르·이집트 FTA
o 미국·파나마 FTA	o EU·GCC FTA(2007.6 타결예상)	o 싱가포르·모로코 FTA
o 미국·코스타리카 FTA	o EU·ACP FTA	o 싱가포르·우크라이나 FTA (07.5개시)
o 미국·오만 FTA	o 일본·ASEAN FTA	o 말레이시아·칠레 FTA (07.6개시예정)
o 미국·페루 FTA	o 일본·브루나이 FTA	o 칠레·호주 FTA(07.4 개시)
o 칠레·파나마 FTA	o 일본·베트남 FTA	o 칠레·베트남 FTA(07.3개시)
o 칠레·페루 FTA	o 싱가포르·페루 FTA	o EU·ASEAN FTA
o 칠레·콜롬비아 FTA	o 싱가포르·카타르 FTA	
o EFTA·SACU FTA	o 인도·GCC FTA 상품협정	
o EFTA·레바논 FTA	o 인도·스리랑카 CEPA	
o 인도·ASEAN FTA 상품협정	o 인도·태국 FTA(2007.7 타결목표)	
o 인도·칠레 FTA	o 말레이시아·파키스탄 FTA(연초)	
	o 말레이시아·호주 FTA(연내)	
	o 말레이시아·뉴질랜드 FTA	
	o 파키스탄·부르나이 FTA	
	o 멕시코·페루 FTA	
	o 인도·ASEAN FTA 상품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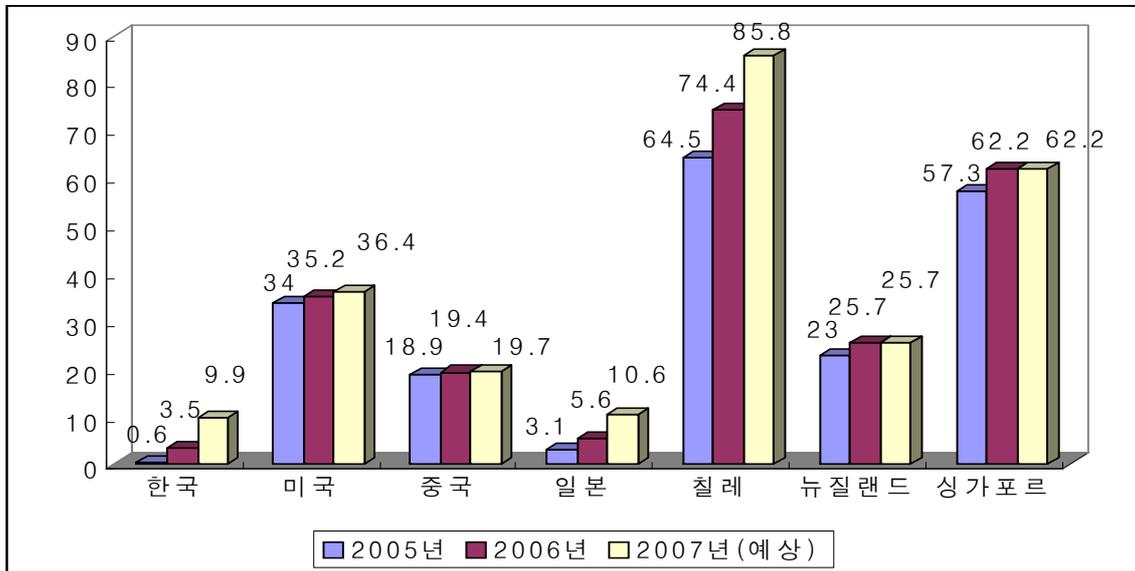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집계 자료를 토대로 업데이트하여 작성

-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FTA 체결국간의 교역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2007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 한국은 지난 2004년 4월 칠레와 FTA를 발효함으로써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0.6%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2006년에 싱가포르 및 EFTA와 각각 FTA를 발효함으로써 그 교역비중이 3.5%로 상승함. 또한 예정대로 2007년 6월경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다면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은 9.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그 외 국가들의 FTA 체결국과의 역내교역 비중을 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미국이 36.4%, 일본이 10.6%, 중국이 19.7%, 칠레가 무려 85.8%, 뉴질랜드가 25.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주요국의 RTA 체결국에 대한 교역비중 변화

(단위: %)



주: FTA 발효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007. 1)